

한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개최

43개 다양한 세션...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난제 푼다

신기술전시회 등 행사 다채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전략 논의
정승일 사장 "미래 비전 함께"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8회차를 맞은 빅스포 2022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Carbon Neutrality & Energy Security)'를 주제로 선정, 전문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전시회, 발명특허대전,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로 오는 4일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 행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개 난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정책과 R&D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기술 성과의 공유·확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2~4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 행사를 개최한다. /한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전문기술 컨퍼런스' 35개, '산학연 교류회' 8개 등 총 43개의 다양한 세션이 개최되고, 특히 전문기술 컨퍼런스는 생산-수송-소비, 정책, 안전·보안으로 구분해 관람객들이 관심 주제에 따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컨퍼런스인 에너지리더스서밋(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 KENTECH) 문승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미국 EPRI, ComEd, 일본 규슈전력, 베트남 IoE 등 에너지분야 글로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토의한다.

전시회는 신기술전시, 한전기술관, 안전신기술관, 스타트업관 등 특별관과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기술전시회에는 현대일렉트릭, LG전선, 효성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히타치, 오라클, 3M 등 글로벌 기업, 40여개의 혁신적 스타트업 등 총 233개 기업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안전신기술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선도를 위해 기획됐다.

한전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발생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만큼, 안전사고 유발 요인 극복 방안을 전시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탄소중립을 고민하던 세계 각국은 당장의 에너지 수급 불안 속제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도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미래 기술과 비전을 빅스포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식약처, 감초 신제품 '원감' 개발... 약전 등재 추진

국내 기술로 만주-유럽감초 교배
기존 품종 대비 글리시리진 높아
2025년 국산화 비율 15% 목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제품 감초 '원감'. /농진청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감초 신제품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국산화의 길이 열렸다.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제품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제품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감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감초는 한의학 등 전통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약용작물로 중국(신

주요 중앙아시아·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신제품인 원감은 기존 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글리시리진은 감초의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 항암, 항알러지 등 효능이 있으며, 글리시리진 2.5% 이상 함유해야 한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제품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 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제품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제품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 1일 KPC 스마트워크라운지에서 열린 '우리 함께 수어를 배워봅시다! 한국수어교육' 참여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PC한국생산성본부

KPC한국생산성본부-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육 특강 개최

KPC한국생산성본부가 국립국어원과 함께 한국수어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립국어원에서 공공기관 등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한국수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국수어문화학교'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운영 기관이기도 한 KPC는 소통과 교류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수어 배움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자 KPC 임직원 뿐 아니라 광화문 주변 기업·기관의 임직원, 시민까지 교육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심재덕 KPC 자격컨설팅센터장은 "수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수어주무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며 "수어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확대가 생산성 향상,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국립생태원 상설주제전시관, 국민 참여형 공간 탈바꿈

'에코라운지 숲, 씬' 개관

국립생태원 내 상설주제전시관이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국민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원내 상설주제전시관2가 '에코라운지 숲, 씬'으로 새로 조성돼 다시

문을 연다.

에코라운지 숲, 씬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생명의 근원 물과 생각의 쉼터, 생명의 나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의 근원 물 공간'은 바닷속 갈조류의 생태계를 알려주는 '켈프 숲'의 역

할,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에 처한 켈프 숲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모습 등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을 감상형으로 연출한다.

'생각의 쉼터 공간'은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생

각과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알려준다.

'생명의 나무 공간'은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5대 기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돼 있다.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탐구활동과 신체활동이 공존하는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시관 관람 시간은 3~10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11~2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비스타비 KPC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이태원 참사' 관련 지휘 책임
- ▲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요청



- ▲ 참사전 신고 11건 접수한 경찰... "소방대응" 요청은 2건
- ▲ 서울교육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 학교에 '긴급 심리지원'



- ▲ '145억 도난' 제주 랜딩카지노사건, 핵심 중국인 용의자 송환
- ▲ '이태원 참사' 부상자 15명 늘어 172명... 사망 변동 없어